

3-15-2026 주일 설교 메시지

금주의 묵상: 시편 91:1-16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1:1-9

말씀 제목: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으로 받은 혼의 구원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케 하심을 통하여,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으로 택함 받은 자들에게 편지했습니다. 이 편지는 은혜 시대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 혼이 구원받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혼이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 그분께서 자신들을 미리 아셨다는 놀라운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미리 아셨다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분께로 나아와서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의 피뿌림을 받아 성령으로 거듭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 위에 은혜입니까?

사도 바울도 미리 아심에 대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증거했습니다:

“그분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를 많은 형제 가운데서 첫째생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하여 예정하신 이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이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이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롬 8: 29-30)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도 영원한 생명을 얻기로 정해진 자들이 다 믿더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하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너희에게 전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나 너희가 그 말씀을 외면하고 너희 스스로가 영생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니, 보라, 우리가 이방인들에게로 향하노라.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내가 너를 이방인들의 빛으로 세웠으니 너는 땅 끝까지 구원을 베풀라.’ 하였음이라. ‘하더라. 이방인들이 이 말을 듣자 기뻐하며 주의 말씀을 찬양하였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로 정해진 자들은 다 믿더라.”(행 13:46,48)

사도 바울과 바나바로부터 복음을 들었던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영혼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하고 나가서 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기쁨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뿐만 아니라, 멕시코, 브라질 그리고 콜롬비아 어느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만나게 하셔서 구원받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는 말은 칼빈주의자들이 말하는 예정론과는 다른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콜롬비아 보고타에 있는 장로교 신학교에서 복음 강의를 하고 있을 때 한 형제가 와서 말하기를 자신은 매일 대학교 캠퍼스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신학교에서 강의를 들으면서 복을 전할 필요가 없다고 배우게 되어 혼란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 형제가 들었던 장로교 칼빈주의 교리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했을 때 그가 즉시 깨달았습니다 :

“하나님께서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딤후 2:4)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아 택함 받은 자들에게 편지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히브리인들에게 증거했습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재도 불결한 자들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함으로써 거룩하게 한다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히 9:13-14)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갖게 하셨으며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찌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잔하지 않는 유업을 간직해 두셨으며 마지막 때에 나타내려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다고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시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크게 기뻐하는것은 우리 믿음의 시련이, 불로써 단련될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는 또한 혼이 구원받은 자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증거들에 대하여 말했습니다:

“너희가 그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며, 지금도 그를 보지 못하나 믿고 있으며, 또 말할 수 없이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하나니 이는 너희 믿음의 결과, 곧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니라.”(벧전 1:8-9)

그는 혼들이 구원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권면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생각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끝까지 바라라. 순종하는 자녀들로서, 이전에 무지하던 때의 정욕에 너희 자신을 맞추지 말고 오히려 너희를 부르신 그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이는 기록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기 때문이니라.”(벧전 1:13-16)

아멘! 할렐루야!